

중국 조선족의 초국가적 가족 유형과 청소년 이탈: 부모유대와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영호** 윤인진***

목 차	
I. 서론	IV. 분석 결과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V. 결론 및 함의
III. 자료와 방법론	

| 논문요약 |

최근 들어 초국가적 가족은 전 세계에 넓게 퍼져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하지만 부모의 해외 이주로 남겨진 자녀들은 우울, 학교생활 부적응, 이탈행동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가 본국에 남겨진 자녀들의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유대와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변자치주 내 8개 시현 중고등학생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이탈 수준은 부모 중 어머니만 해외로 이주한 경우와 부모 모두가 해외 이주 후 연변으로 돌아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유형에서 더욱 높았다. 부모애착,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은 부모 중 어머니만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 속하는 청소년이 여타 유형의 청소년보다 더욱 낮았다. 여타의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만 해외로 이주한 유형과 부모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251). 논문을 위해 유익한 논평과 조언을 해주신 김정규 선생님, 장안식 박사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가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한 유형이 일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 관계 변수 중에서는 부모애착과 가족응집력이 청소년의 일탈을 경감시키는 억제 효과가 있었다.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모 모두가 해외 이주 후 연변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는 유형과 부모애착과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모두에서 일탈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즉 부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주 패턴을 보이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가장 일탈에 취약하였다. 하지만 이 유형에 속한 자녀들에게 부모유대와 가족탄력성의 효과 또한 두드러졌다. 이런 연구 결과는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한 유대감으로 자녀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증진될 수 있는 초국가적 양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가족구조, 가족관계, 청소년 일탈

I. 서론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뤄지는 초국가적 이주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초국가적 이주는 주로 가족단위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가족구성원이 서로 다른 국가에 분거하면서 가족구조와 형태가 변하게 된다(Bryceson & Vuorela 2002, 3; Parreñas 2005; Zontini 2004). 해외로 이주한 가족과 본국에 남겨진 가족들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가족 간 유대(kinship ties)는 오히려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Banfi & Boccagni 2011, 288-289; Bernhard et al. 2009, 7; Pribilsky 2004, 315). 이는 국경을 가로 지르는 물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초국가적 사회적 장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가족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지속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초국가적 가족 현상은 이미 필리핀, 멕시코, 대만, 중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Bryceson & Vuorela 2002). 몇몇의 개발도상국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 중 부모가 해외로 이주하고 본국에 남겨진 자녀의 비율이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UNICEF 2006).

최근 들어 초국가적 이주의 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초국가적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Baldassar et al. 2007, 13). 특히 부모의 해외 이주는 본국에 남겨진 자녀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국에 남겨진 자녀들은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관심과 사랑, 감독과 통제가 장기간 결핍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부적응, 우울, 낮은 자존감, 일탈 문제, 친구와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Dreby 2010, 70-76; Jordan & Graham 2012, 764; Graham et al. 2015, 233; Parreñas 2005; Yeoh & Lam 2007; Wen & Lin 2012, 121-122; 리화 2014, 100-103; 오이시 나나 2011, 298-302; 한상돈 2013, 198-200). 더욱이 부모가 해외 이주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이혼, 별거, 사별을 통해 가족해체를 경험한 경우에는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오이시 나나 2011, 305). 또한 부모 중 누가 본국에 남겨진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은 영향을 받게 된다(Demuth & Brown 2004, 65; 기광도 2009, 44; 정소희 2006, 189; 유안진 외 2005, 96-97). 하지만 부모 부재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결혼 상황이 꼭 청소년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자녀의 관계, 부모의 양육 방식, 가족의 분위기 등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청소년 일탈에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준호 외 2003). 허쉬(Hirschi 1969)도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이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모자녀 간의 유대가 좋을수록 비행을 통제하는 힘이 강하여 부모의 부재가 꼭 청소년의 사회문화 부적응과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들도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적 측면이 자녀의 비행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간에 상호작용 및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rowning 1960; Demuth & Brown 2004; Nye 1958; Wells & Rankin 1988; 기광도 2009; 김영미 2006; 유안진 외 2005; 정소희 2006; 조아미·임영식 2009; 황혜정 2003; 윤우석 2011, 138 재인용). 즉 단순한 가족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청소년이 부적응의 문제를 겪기보다는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복합적 측면이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연변조선자치주의 경우도 부모의 해외 이주로 인한 초국가적 가족

현상은 ‘한집 건너’에서 ‘한사람 건너’로 일상화되었다(Kwon 2013). 조선족 사회는 1990년대 개혁개방과 한중수교를 계기로 대규모 인구인동이 일어났다. 개혁개방으로 조선족 인구의 절반 이상이 원거주지를 떠나 중국의 대도시나 연해부로 이동하였다. 한중수교 이후부터는 조선족이 한국,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강진웅 2012, 109; 구지영 2013, 300-301). 이러한 해외 이주는 2007년 방문취업제를 기점으로 그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김현미 2009, 37; 우명숙·이나영 2013, 140).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7월 31일 현재 1,801,410명의 체류외국인 중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는 수치로 623,432명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연변자치주에 남겨진 자녀들 중 부모 모두나 한쪽 부모와도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수도 3만여 명 정도로 조선족자치주의 전체 조선족 학생의 5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연변일보』 2011/11/20; 리화 2014, 84 재인용). 1990년대 이후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부모의 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국에 남겨진 자녀들은 우울, 정서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 학교 부적응, 이탈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도 초국가적 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선족 사회는 이주로 인한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 대규모 해외 이주로 인한 조선족 비율 감소, 지역 경제의 한국의존도 심화, 정체성의 혼란 등의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더욱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조선족의 생활세계도 초국가적 사회적 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조선족들은 연변을 거주지, 한국 등 해외를 경제활동지로 생활세계를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Kwon 2013). 즉 한국, 일본 등지의 해외는 조선족 사회 전체의 수입원이자 이주와 정주에 따르는 자금을 모으는 경제활동지로 인식하고 연변 지역은 가족재결합이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재생산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구지영 2011, 444).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과거 산업 연수생에만 국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3D업종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자영업자, 엘리트·지식인 등으로 다양한 지위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정은 2012, 415). 이러한 지위분화와 맞물려 조선족의 정체성과 귀속의식도 한국에서 잠시 머물다 중국으로 귀소, 한국 사회로 적극적으로 동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

한 채 보다 나은 기회를 찾는 유형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방미화 2013, 243-245).

기존의 초국가적 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일국적 방법론주의에 입각하여 본국과 거주국을 개별적인 생활공간으로 상정하고 부모의 해외 이주로 본국에 남겨진 자녀의 생활실태나 학교적응 등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체류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거주국에서 경제활동,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주로 연구해 왔다. 하지만 초국가적 사회적 장을 중심으로 가족의 분거와 재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구구조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하고, 물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가족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초국가적 양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관계의 역동성이 거주국과 본국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더욱이 부모의 해외이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관계의 상호작용과 매개효과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거주국과 본국 사이의 지리적 거리감으로 인하여 양국을 서로 분리된 생활세계로 인식하고 국경을 넘어서는 가족관계는 불가능하거나 또는 최소한 어려운 과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더욱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가 본국에 남겨진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비교할 때 준거변수를 부모 모두가 해외에 이주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유형으로 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지금껏 다수의 연구들이 부모의 해외 체류 유형(부모 모두 이주, 아버지만 이주, 어머니만 이주)별로 비교하거나 현재 본국에서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조손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 등)에 따른 비교에 집중하여 부모의 해외 이주 영향이 한 번도 해외 이주한 경험이 없는 유형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해외로 이주 후 돌아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의 초국가적 가족 연구는 인터뷰나 사례연구 중심의 질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부모의 해외 이주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부모자녀 간의 관계, 본국에 남겨진 자녀의 생활실태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객관적 지표에 따라 일반화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변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을 사례로 부모의 해외이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자녀의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유형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관계가 조절하는지를 설문조사와 같은 정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변 조선족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주된 이유는 연변지역에 남겨진 자녀들의 사회문화 부적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변 조선족은 여타 이주민들과는 달리 중국 연변과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출입국 정책의 편리함 때문에 이들의 이동성은 그 어느 집단보다 활발한 편이다. 이들은 해외 이주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적 왕래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초국가적 양육을 하는 등 가족 간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변 조선족의 청소년은 해외이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초국가적 양육이 청소년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 초국가적 가족과 자녀양육

초국가적 가족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¹⁾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가족구성원이 복수의 나라에 분거하면서 다중적인(multi-stranded)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Baldassar 2007, 387; 강유진 2009, 206-207). 초국가적 가족은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 동기나 형태적 측면에서 여러 모양을 보인다(Dreby 2006, 33; Yeoh et al. 2005, 312). 지리적으로 볼 때 초국가적 가족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사

1) 초국가주의는 이주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사회적 장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Basch et al. 1994). 즉 초국적 이주자들(transmigrants)이 가족, 경제적, 사회적, 조직적, 종교적, 정치적인 복합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Faist 2000, 191).

이에 두고 부부가 떨어져 살며 모든 가구의 생계 단위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게 된다(Parreñas 2001). 이 경우 본국에 남겨진 자녀들은 한쪽 부모가 데리고 살거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외로 이주한 가족과 본국에 남겨진 가족은 지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 상호 간의 의무를 다하고 가족 공동의 복지와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간 강한 연계를 가지고 상호적인 실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Bryceson & Vuorela 2012, 11).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초국가적인 가족의 상황을 삶의 일시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변이로 보기보다는 생애과정(life course)에서 부단히 일어나는 단계적이고 누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Kobayashi & Preston 2007, 154). 초국가적 가족의 삶은 개별 가족구성원이 아닌 가족 전체의 사건(event)으로서 개별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일방향적 이동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이주 목적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일련의 다중 방향적 이동과 관련이 깊다. 우명숙과 이나영(2013)도 생애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초국가적 이주는 초국가주의에서 의미하는 일시적 이주와 정주라는 장소적 의미뿐만 아니라 생애단계에서의 ‘일시적 이주와 정주’라는 생애 시간적 의미를 동시에 함의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주과정을 정상적인 생애과정(normal life course)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거주국에서 적응의 속도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우명숙·이나영 2013, 147).

이러한 초국가적 가족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경을 넘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가족’으로서 상호 간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Baldassar 2007, 387; Landolt & Da 2005, 628; Schmalzbauer 2008, 331). 초국가적 양육을 위한 대표적인 전략으로 ‘개척자 전략’과 ‘상대화 전략’을 손꼽을 수 있다. ‘개척자 전략’은 가족 내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의 경계를 상호 조절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족원들이 서로 상이한 가치들을 암묵적으로 이해해 가는 과정이다. ‘상대화 전략’이란 초국적 가족원들이 아무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상호 친밀감과 의무감을 잃지 않기 위해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 네트워크

내지는 이웃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전략이다(Bryceson & Vuorela 2012; 강유진 2009, 208 재인용). 다음으로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은 가족구성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각자 구성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맞아 이에 적절히 대응하며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McCubbin & McCubbin 1998). 즉 지리적 분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하나됨(sense of 'unity')을 유지하는 가족의 역량을 의미한다(Bonizzoni & Boccagni 2013, 78; Goulbourne et al. 2010, 11). 이러한 가족탄력성은 초국가적 가족이 가족 분거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2. 가족 요인과 청소년 일탈

청소년 일탈 수준은 가족의 구조와 관계의 질에 따라 상이하다. 먼저 가족구조에 따른 일탈의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 한쪽만 있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하여 심리정서적 문제, 폭력, 음주, 약물 사용 등의 일탈 발생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Barrett & Turner 2006; Bernardini & Jenkins 2002; 김준호·김은경 1995; 신혜섭 2005; 유안진 외 2005). 이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양부모가족보다 한 사람의 부모가 생계 및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소홀하고 부모의 무관심, 애정부족, 한부모가족 내에서는 역할모델이 부재, 자녀 생활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이창한·강민완 2010, 181-182).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로 이주한 부모가 어머니인 경우 남겨진 자녀들은 더욱 정서적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Liu & Ge 2009, 2052; Parreñas 2005). 필리핀과 멕시코의 사례의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더욱 더 자신이 버려졌다는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Graham et al. 2012, 771). 그리고 가족해체의 원인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인 경우가 사별한 경우보다 폭력비행, 지위비행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ington 1996; 유안진 외 2005, 96 재인용). 또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 일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궁핍은 경제적 박탈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청소년 일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Amato 1993, 25).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가정보다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면이 혼재되어 한부모가족 청소년에게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유안진 외 2005).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유형이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일정한 것이 아니다. 소득 자체보다는 가족이 해체된 이후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이 오히려 일탈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가족구조가 청소년 일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관계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있다(이삼연 2002; 신혜섭 2005; 정소희 2006). 단순히 가족 해체에 다른 가족구조의 변화보다 가족관계의 질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수준이 자녀의 일탈을 결정한다. 평소 부모의 무관심, 애정부족, 학대 등 부적절한 양육방법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이성식 2008, 175-176). 나이(Nye 1958)는 가족해체에 따른 결손 가정이 일탈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정이 더욱 중요한 일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감이나 정서적 친밀감, 부모자녀 간의 관계,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 태도, 정서적 유대감 등 가족관계의 기능이 청소년 일탈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신송연·장현석 2013, 5-7; 홍순혜 2004, 162). 허쉬(Hirschi 1969)는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에서 부모와의 유대감이 증대할수록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즉 부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부모와의 유대감 및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부모의 기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내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일탈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한쪽 부모의 결손이라는 단순한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일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간의 기능, 가족해체가 가져오는 경제적 빈곤 요인과 같은 가족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초국가적 가족과 자녀의 문제 양상

부모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주민 가족의 자녀는 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의 유무와 상관없이 외로움, 분노, 슬픔, 버림받은 것에 대한 서러운 감정 등의 복합적인 정서를 보인다(Fresnoza-Flot 2009, 255; Graham et al. 2015; Mazzucato 2014, 752). 오이시 나나(2012)도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로 인하여 본국에 남겨진 자녀들은 돌봄 제공자의 부재로 학업 중단, 어른의 권위에 대항과 같은 일탈과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마약 복용과 알콜 중독과 같은 고위험군 행동, 조속한 성적 접촉으로 인한 10대 부모, 우울과 불안 그리고 낮은 자아 효능감 등의 부정적인 행동과 정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더욱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 과정에서 부모가 죽거나 이혼 혹은 재혼을 한 경우는 자녀들의 안녕(well-being)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mith et al. 2004, 110-111; Pottinger 2005, 486).

수자르 외(Suarez-Orozco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초국가적 이주를 통한 분거를 경험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우울 증상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버려진 느낌, 부모와 소원한 관계로 인한 모호한 상실감(ambiguous loss)을 더욱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로 부모와 장시간 분리되었던 경우는 가족체계에 다시 영입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오이시 나나 2012). 반면 자녀들과 재결합한 이후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부모의 이러한 권위의 재정립은 부모의 죄의식에 의해 일치하지 않는 양육방식이나 자녀 맘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 것(overindulgence)으로 나타나기도 한다(Vanore et al. 2015, 255).

헤이만 외(Heymann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초국가적 가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족구성원 중 돌봄을 줄 수 있는 구성원 모두가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는데 가족구성원 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육문제, 정서문제, 건강문제에서 더욱 열악한 현실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행동(17% vs. 10%, $p < 0.018$)에서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

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이주는 자녀입장에서 부양 자원과 발전적 지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더욱 부모의 자리를 그 누구라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문제행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라하이 외(Lahaie et al. 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와 동료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초국가적 가족의 웰빙에 관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주의 형태, 돌봄형태, 부모의 근로조건,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자녀의 문제행동, 정서문제,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미국에 돌봄 제공자(응답자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 멕시코 본국에 남겨진 자녀에게 문제행동과 정서문제가 발생할 오즈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형태에 따라서 부모 없이 자녀 스스로 멕시코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행동이 발생할 오즈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근로 조건별로 살펴보면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을 위해 시간을 내기 곤란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경우 자녀의 정서문제가 발생할 오즈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로 인한 부모 부재와 유사한 상황으로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과 같은 가정해체와 부모상실(parental loss)을 경험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해체와 자녀의 부정적 심리형성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일반적인 조사를 통해선 관계가 있음을 규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로 크게 삼등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질과 그의 동료들(Zill et al. 1993)은 해체가족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혼가정의 18-22세의 청소년들 중 65%(30%)가 부친(모친)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25%는 고등학교를 자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40%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변수를 통제하여 진행한 분석에서도 해체가족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논증한 바 있다(Zill et al. 1993, 91).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부모 세대의 빈번하고 반복적인 해외 이주로 인하여 가족구조의 안정성이 취약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불안정한 관계가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해외 이주로 인한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정과 문제 행동들을 일으키게 된다.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로 인해 불안정한 가족구조와 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질이 낮아져 연변에 남겨진 청소년은 학교 부적응, 정신건강, 일탈 등의 문제를 빈번하게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혜원·박민정 2005, 222; 윤명숙 외 2012, 115; 정혜원 외 2011). 구체적 문제행동으로 조선족 청소년들은 가출, 학교 무단결석, 외로움, 학업부진,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명숙 외 2012, 114-115).

앞선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 가설 1: 초국가적 가족 유형(부모 모두 동거, 부모 모두 해외 이주, 아버지만 해외 이주, 어머니만 해외 이주,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에 따라 청소년 일탈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 가설 2: 초국가적 가족 유형에 따라 가족관계 변인(부모유대, 가족탄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 가설 3: 초국가적 가족 유형은 청소년 일탈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가족관계 변인(부모애착, 가족탄력성)은 청소년 일탈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초국가적 가족 유형과 청소년 일탈의 관계를 가족관계(부모유대, 가족탄력성)가 조절할 것이다.

Ⅲ. 자료와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SSK 문화다양성과 공존’ 사업단의 ABD 연수를 통해 중국 연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중국 조선족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연구책임 윤인진 교수)와

연변대학교 사회학과(허명철 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주된 목적은 중국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에 따라 연변지역에 남겨진 자녀들의 사회문화 적응(정신건강, 학교생활, 일탈)의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연변자치주 내 8개 시현 중/고/대학생 총 3,450명(중학생 1,400명, 고등학생 1,400명, 대학생 650명)으로 하였으며, 표본 추출은 연변자치주 2014년 통계연감의 조선족 학교 및 학생 분포를 기준(대학생 제외)으로 지역별/성별/학교별/학년별로 할당표집하여 확보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정확한 할당표집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사는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본 연구자가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과 함께 8개 시현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2,800명의 자료만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기술통계, 요인분석, 평균차이검증, 회귀분석을 사용했고, 통계분석에는 SPSS ver. 19가 사용됐다.

2. 분석변수

1) 종속변수/청소년 일탈

청소년 일탈 변수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탈 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은 경비행과 중비행을 측정하는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지난 1년간 일탈 경험이 몇 번이나 되는지로 측정하였다. 경비행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음란물 시청”에 관한 5개 질문이고, 중비행은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공공기물 파손, 돈내기 도박”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한 응답 범주는 4점 척도(①=전혀 없음, ②=1-2번, ③=3-4번, ④=5번 이상)로 구성됐다. 비행을 측정하는 문항의 응답 분포는 일탈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규분포와 등분산성의 가정을 충족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척도도 엄밀한 의미에서 등간격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경험 여부에 따라 이분변수(0=없음, 1=경험)로 리코딩하고 전체 문항을 합산한 값을 ‘일탈’ 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일탈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비행’과 ‘중비행’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항을 합산하여 변수를 구분하였다. 각 변수의 신뢰도 (Cronbach α)는 ‘일탈(전체)’이 .752, ‘경비행’ .648, ‘중비행’ .644로 양호한 수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의 정도가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독립 변수

(1) 초국가적 가족유형

중국 조선족은 한국에 거주하는 여타의 외국인 이주자보다 모국과 거주국을 왕래하는 이동성이 높은 집단이다. 또한 부모의 ‘(한국으로)출국-(연변으로)귀국-(한국으로의)재출국’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의 가족 분거와 재결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연변지역에 남겨진 자녀들과 해외로 이주한 부모의 결합 형태가 수시로 변하는 특징을 보인다. 부모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비자나 집안일 등의 사정으로 잠시 귀국하였다가 곧바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현재 부모가 귀국하였다더라도 영구 귀환이 아니라 임시적인 거주 형태로 다시 출국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자녀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 중 누가 해외로 이주하였고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부모 중 누가 부재하고 누구와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령기 자녀들의 생활 안정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국가적 가족 유형은 ‘현재 부모 중 누가 근로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과 ‘현재 한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표기해 주세요’의 응답 범주 중 부모 동거유무만을 교차하여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²⁾ <부모

2) 부모의 해외 이주 유형은 현재 근로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한정하였다. 부모가 여행, 친척방문 등의 사유로 해외에 방문을 하고 있는 경우는 설문 작성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국가적 이주는 근로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부모 동거유무는 현재 한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 ‘부’ 또는 ‘모’, ‘부모’의 동거 유무만을 고려하였다. 조부모나 친척 등의 동거 형태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부’와 ‘모’로 모두 일맥상통하게 처리하였다.

모두 동거(type I)> 유형은 부모가 모두 해외로 이주한 경험이 한 번도 없고 한 집에서 거주하는 유형이다. <부모 모두 해외 이주(type II)>는 부모 모두가 해외에 이주하여 부모 모두 부재한 경우이다. <아버지만 해외 이주(type III)>의 경우는 아버지만 해외로 이주하고 현재 어머니와 거주하는 경우이다. <어머니만 해외 이주(type IV)>의 경우는 어머니만 해외로 이주하고 아버지와 거주하는 유형이다.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는 부모가 모두 해외에서 체류하다 연변으로 귀국하여 함께 동거하는 경우이다. 분석에서는 부모 모두 해외 이주 경험이 없고 연변에서 함께 체류하고 있는 유형(type I)을 준거변수로 하고, 각각의 유형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초국가적 가족 유형

		부모동거유형			
		부모 모두	부만	모만	부모 부재
부모 해외 이주 유형	부모 모두 해외 이주 경험 없음	type I 436(20.2%)			
	부모 모두 해외 이주				type II 755(34.9%)
	아버지만 해외 이주			type III 457(21.1%)	
	어머니만 해외 이주		type IV 279(12.9%)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귀국	type V 236(10.9%)			

(2)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으로 부모가 얼마나 자녀와 정서적 동질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Bowlby 1969). 또한 부모가 곁에 없더라도 자녀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제로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적이고 내면화된 관계의 일면을 나타낸다(김준호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은 부모자녀 간의 애정과 의사소통을 통합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은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와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 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이다. 이에 대한 응답 범주는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⑤=항상 그렇다)로 구성됐다. 5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 α)는 .852로 내적 일치도는 높다. 다섯 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였다.

(3)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혼란에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 차원,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McCubbin & McCubbin 1998). 즉 가족구성원이 위기, 역경,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가족의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은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에 해당하는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요인은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가족응집력’이 .859이고, ‘가족적응력’이 .800이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90이다. 각각의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각각의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표 2> 참조). 앞서 부모애착 변수처럼 가족탄력성의 두 가지 변수도 회귀분석 시 평균중심화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2> 가족탄력성 변수 요인분석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1	2	요인별	전체문항
3) 우리 가족은 서로 간에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820		.859	.890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790			
2) 우리 가족은 자유시간을 되도록 함께 보내려고 한다	.789			
4) 우리 가족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경우 가족과 상의한다	.697			
5) 우리 가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가족원 누구의 의견이라도 수용한다	.585			
9) 우리 가족은 변화에 빨리 적응한다		.763	.800	
8) 우리 가족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717		
7) 우리 가족은 일의 성질에 따라 주도하는 사람이 바뀐다		.717		
10)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문제해결을 잘 해온 편이다		.626		
6) 우리 가족의 일처리 방법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달라진다		.607		

3) 통제변수

청소년 일탈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라 통제변수는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성별(0=남성), 연령(자연연령), 학년, 학력수준(5점 척도), 주관적 경제수준(10점 척도), 소득수준(12점 척도), 부모학력수준(교육연한), 혼인상태(0=결혼)로 측정했다.³⁾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에서 제시되었다.

3) 학력수준은 한어, 조선어문, 영어, 수학, 정치/역사/지리, 물리/화학/생물 등 6개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평균값으로 매우 못하는 수준(1점)부터 매우 잘하는 수준(5점)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최하층(1점)부터 최상층(10점)까지 10점 척도로 제시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은 중국 위안화(CNY)를 단위로 2,000위안 미만(1점)부터 22,000위안 이상(12점)까지 2,000위안을 단위로 소득구간을 1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변수는 12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최종학력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를 교육연한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혼인상태는 현재 부모가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준거(=0)로 이혼, 별거, 재혼, 사별 등의 사유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를 가변수(=1)로 처리하였다.

<표 3> 변수 및 기초통계량

항목	변수명 및 설명		평균(표준편차)	비고
종속변수	일탈		1.84(1.939)	10점 척도
	경비행		1.04(1.158)	5점 척도
	중비행		.80(1.080)	5점 척도
독립변수	부모 모두 동거(type I)		436(20.2%)	
	부모 모두 해외 이주(type II)		755(34.9%)	
	아버지만 해외 이주(type III)		457(21.1%)	
	어머니만 해외 이주(type IV)		279(12.9%)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		236(10.9%)	
	부모애착		3.66(.866)	5점 척도
가족탄력성	가족응집력		3.82(.814)	5점 척도
	가족적응력		3.64(.722)	5점 척도
통제변수	성별(여성=1)		.55	가변수
	연령		15.94(1.808)	자연 연령
	학년		1.96(.813)	3점 척도
	학력수준 (6개 과목 주관적 학력수준 평균)		3.03(.653)	5점 척도
	주관적 경제수준 (1=최하층, 10=최상층)		5.55(1.302)	10점 척도
	가족 한달 총수입 (1=2,000위안 미만, 12=22,000위안 이상)		4.52(2.678)	12점 척도
	부모 교육수준 (초교 졸업 이하=6, 중등 졸업=9, 고등 졸업=12, 대학교 졸업=16, 대학원 졸업 이상=18)		11.76(2.647)	부모 점수 평균값
	결혼상태 (결혼=0, 이혼/별거/재혼/사별 등=1)		.29(.454)	가변수

IV. 분석 결과

1. 가족 유형에 따른 일탈 수준 비교

응답자들의 초국가적 가족 유형에 따른 일탈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먼저 경비행과 중비행에 해당하는 전체 문항의 합인 “일탈” 수준은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 유형이 2.27점(10점 척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만 해외 이주> 2.04점, <부모 모두 해외 이주> 1.84점, <아버지만 해외 이주> 1.79점, <부모 모두 동거> 1.44점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준거변수와 어머니만 해외로 이주한 경우, 부모 모두 해외에서 체류하다 돌아온 경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양육자 중 어머니의 부재가 더욱 청소년 적응과 일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상응한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부모가 모두 해외로 이주하여 현재 부모 모두 부재한 경우보다 부모가 해외 이주 후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더욱 자녀들의 일탈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모두가 해외 이주로 인해 부재한 경우는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약화되었지만 조부모나 친척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일탈과 비행이 억제되고, 또한 부모 부재 상황을 사회보편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적응함으로써 문제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 모두가 해외 이주 후 동거하게 된 경우는 부모와의 장기간 떨어져 지내다가 재결합 한 경우로 부모와 자녀 모두 재적응 과정에서 어색하고 소원해진 관계로 인하여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작용으로 일탈행동이 빈번해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경비행의 경우는 준거변수와 어머니만 해외로 이주하고,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하는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중비행의 경우는 준거변수와 부모 모두가 해외 이주 후 귀국하여 연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중비행의 경우는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연변으로 돌아와 부모와 재적응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더욱

비행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표 4> 가족 유형에 따른 일탈 수준 비교

구분	일탈(전체) (10점 척도)	경비행 (5점 척도)	중비행 (5점 척도)
부모 모두 동거(type I)	1.44a	0.79a	0.66a
부모 모두 해외 이주(type II)	1.84abc	1.01ab	0.83ab
아버지만 해외 이주(type III)	1.79ab	1.00ab	0.79ab
어머니만 해외 이주(type IV)	2.04bc	1.22bc	0.81ab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	2.27c	1.28c	0.99b
F	8.243***	9.764***	3.926**

* abc는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 비교 / ***<.001

2. 가족 유형에 따른 부모애착 수준 비교

초국가적 유형에 따른 부모애착의 수준을 살펴보았다(<표 5> 참조). 부모가 모두 해외로 이주한 경험이 없고 연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유형(type I)이 3.81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버지만 해외 이주> 3.72점,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 3.71점, <부모 모두 해외 이주> 3.66점, <어머니만 해외 이주> 3.49점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한 집단 비교를 한 결과 대체로 어머니만 해외에 체류하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편부가족이 여타의 집단보다 부모애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충족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착 수준이 더욱 낮은 것이라고 추론된다. 즉 어머니의 해외 이주로 인한 부재로 직접적인 접촉과 정서 교감의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의 애착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사이의 애착은 주로 어머니의 영향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가족 유형에 따른 부모애착 수준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부모 모두 동거(type I)	435	3.81a	.880	6.122***
부모 모두 해외 이주(type II)	751	3.66ab	.890	
아버지만 해외 이주(type III)	454	3.72a	.819	
어머니만 해외 이주(type IV)	279	3.49b	.817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	235	3.71a	.810	

* abc는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 비교 / ***<.001

3. 가족 유형에 따른 가족탄력성 수준 비교

초국가적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탄력성 수준을 살펴보았다(<표 6> 참조). 먼저 “가족응집력”의 경우 <부모 모두 동거> 유형이 3.95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버지만 해외 이주> 3.92점,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 3.88점, <부모 모두 해외 이주> 3.80점, <어머니만 해외 이주> 3.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한 집단 비교를 한 결과 해외 체류 경험이 없고 부모가 모두 연변에서 함께 거주하는 유형과 아버지만 해외에 이주하고 있는 유형이 공통적인 집단이다. 이 두 집단과 어머니만 해외에 체류하는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즉 어머니의 부재는 가족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정서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적응력”의 경우도 부모 모두 연변에서 함께 거주하는 유형(3.78점)과 어머니만 해외에 체류하는 유형(3.56점) 사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해외 체류에 따른 가족구성원 간의 가족탄력성 수준은 어머니의 부재가 가족탄력성에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6>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탄력성 수준 비교

구분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N	평균	N	평균
부모 모두 동거(type I)	435	3.95a	435	3.78a
부모 모두 해외 이주(type II)	752	3.80ab	751	3.60ab
아버지만 해외 이주(type III)	455	3.92a	455	3.66ab
어머니만 해외 이주(type IV)	279	3.70b	278	3.56b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	235	3.87ab	235	3.70ab
F	5.835***		5.180***	

* abc는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 비교 / ***<.001

4.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앞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청소년 일탈을 선정했다. 이 변수와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했다. <표 7>에서 보듯이 일탈과 가족 유형 중 <부모 모두 동거(type I)>(r=-.088)은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가진 반면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r=.063)과는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다만 경비행의 경우에 <어머니만 해외 이주>와 경비행 간에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갖는다. 즉 청소년 일탈은 부모가 모두 해외 체류 경험 없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낮은 반면 부모가 해외에서 체류하고 돌아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변인은 부모애착(r=-.195), 가족응집력(r=-.166), 가족적응력(r=-.116) 모두가 전체 일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도 일탈 전체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가족 내에서 기능적인

변수인 부모애착과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이 높을수록 일탈과 비행의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 모두 동거(type I)> 유형은 부모애착($r=.073$), 가족응집력($r=.072$), 가족적응력($r=.087$)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만 해외 이주(type III)> 유형과 가족응집력($r=.058$)도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만 해외 이주(type IV)>유형과 부모애착($r=-.063$)과 가족응집력($r=-.047$)간에 부적 관계를 보였다.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일탈	1										
2. 경비행	.876* *	1									
3. 중비행	.856* *	.519* *	1								
4. 부모 모두 동거	-.088 **	-.087 **	-.044 *	1							
5. 부모 모두 해외 이주	-.008	-.013	.001	-.259 **	1						
6. 부만 해외 이주	-.010	-.013	-.003	-.189 **	-.267 **	1					
7. 모만 해외 이주	.029	.046* *	-.002	-.142 **	-.201 **	-.146 **	1				
8.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	.063* *	.050* *	.062* *	-.130 **	-.183 **	-.133 **	-.100 **	1			
9. 부모애착	-.195 **	-.189 **	-.147 **	.073* *	.000	.032	-.063 **	.017	1		
10. 가족 응집력	-.166 **	-.148 **	-.141 **	.072* *	-.009	.058* *	-.047 *	.022	.576* *	1	
11. 가족 적응력	-.116 **	-.105 **	-.096 **	.087* *	-.033	.014	-.036	.027	.515* *	.680* *	1

* $p<0.05$, ** $p<.01$ (양측검증)

2) 주요 변수 간 회귀분석

조선족 초국가적 가족 유형이 청소년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했다. 그리고 가족구조(초국가적 가족 유형) 변수와 가족 기능(부모애착, 가족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가족구조와 가족 기능의 상호작용 효과가 청소년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1) 청소년 일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8>은 초국가적 가족유형과 청소년 전체 일탈 간의 관계에서 가족 관계(부모애착,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이다⁴⁾. <모델 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가구소득(월)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월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 일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일탈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가구소득 수준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미쳤다. 즉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자녀의 일탈이 증가하는 국내외 선행연구와는 반대로 월별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일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별 가구 소득은 부모의 해외 이주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해외 이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거주국에서 직업 안정성이 높아져서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하지만 그 기간만큼 부모의 부재 기간이 길어져서 양육자의 감독과 통제가 약화되는 부정적 영향으로 본국에 남겨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모델 II>은 <모델 I>에 초국가적 가족유형 변수만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에 따른 가족구조가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미

4) 지면의 제약으로 일탈(전체)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효과만을 제시하였다. 경비행과 중비행에 미치는 주요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경비행은 일탈(전체)에 미치는 효과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하지만 일탈(전체)과 다른 점은 부모가 이혼, 별거, 사별 등의 가족해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중비행의 경우는 가족 유형 중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 유형만 중비행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경비행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와 가족적응력의 상호작용 효과가 중비행($\beta=-.067$)에서는 유의미하였다.

치는지 검증하였다. <모델 I>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던 통제변수는 모두 <모델 II>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 모두 동거(type I)>를 준거변수로 했을 시 <어머니만 해외 이주(type IV)>한 유형($\beta=.052$)과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 유형($\beta=.079$)이 일탈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부재하거나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재결합한 경우와 일탈행동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한 유형이 어머니만 해외 이주한 경우보다 일탈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자 중 어머니의 부재가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이 더욱 빈번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응한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해외에서 돌아와 함께 살게 된 경우는 장기간 부모 부재한 상황에 익숙하였지만 가족이 재결합함으로써 지금껏 적응해 온 삶이 변하고 가족구성원 간에 의도치 않은 갈등과 긴장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심리적 불안정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일탈 행동이 빈번해지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즉 가족 분거, 부모 부재, 그리고 가족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가변적인 가족구조와 생활환경의 불안정이 일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역의 관계도 성립될 수 있어서 해석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부모 부재로 남겨진 자녀의 부적응 및 일탈 행동이 문제시되어 부모가 귀국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모델 III>에서는 <모델 I>의 모형에 가족관계(부모애착,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의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것이다. 가족관계의 변수는 여타의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애착($\beta=-.092$)’과 ‘가족응집력($\beta=-.106$)’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간의 애착과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가족구성원 간 정서적 교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할수록 일탈 수준은 감소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비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보다 가족구성원 전체의 응집력이 일탈을 억제하는 데 더욱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모두가 부모의 해외 이주로 가족해체라는 부정적 상황에 처했지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점 관점의 가족탄력성이 강할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탈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애착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내적 제재와 통제 효과를 가져와 비행행위를 감소시킬 것이라 사회유대이론이 본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IV>는 초국가적 가족유형 변수와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변수 모두를 투입한 모형이다. 초국가적 가족유형 중에서는 ‘어머니만 해외 이주($\beta=.044$)’와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beta=.078$)’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족관계 변수 중에서는 ‘부모애착($\beta=-.091$)’과 ‘가족응집력($\beta=-.1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 중 부모애착의 효과가 일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부재나 가변적인 가족구조의 취약성은 자녀들의 일탈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긍정적 가족관계는 일탈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모델 V>는 <모델IV>에 가족관계 중 ‘부모애착’ 변수와 초국가적 가족 유형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 모델이다. <모델 IV>와 비교할 때 설명력의 변화량($\Delta R^2=.005$, $<.01$)은 유의미하여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가족 유형 중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해외 이주로 가족 분거 후 부모 부재, 재결합을 경험한 자녀들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애착의 효과로 영향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가 일탈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부모애착’의 부적(-) 효과가 많은 부분 억제한 것이다. 즉 부모의 해외 이주와 귀국으로 가족 분거와 재결합을 경험한 가족구조의 가변성이 가장 큰 집단에서 부모애착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VI>은 초국가적 가족유형과 조절변수 중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가족응집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모델 IV>와 비교할 때 설명력(R^2)의 변화는 유의미한 증가($\Delta R^2=.007$, $p<.001$)를 보였다.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 유형과 ‘가족응집력’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였으며 음(-)의 수치를 나타냈다. 이 상호작용항은 일탈에 부

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족응집력’은 부모 모두 해외에서 체류하고 돌아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유형과 일탈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VII>은 초국가적 가족유형과 ‘가족적응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모델 IV>와 비교할 때 설명력(R²)의 변화가 유의미하였다(ΔR²=.005, p<.05). ‘가족적응력’도 부모 모두 해외에서 체류하다 돌아와 연변에서 동거하는 유형과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가족적응력만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초국가적 가족유형과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간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이 부모 모두 해외에서 돌아와 자녀와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일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	모델 VI	모델 VII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남성=0)	-.154***	-.154***	-.141***	-.142***	-.141**	-.140***	-.142***
	연령	.192***	.191***	.190***	.189***	.191***	.190***	.190***
	학년	-.012	-.013	-.015	-.016	-.018	-.017	-.016
	학력수준	-.118***	-.116***	-.081***	-.079***	-.079***	-.082***	-.080***
	주관적 경제수준	-.020	-.018	-.008	-.007	-.006	-.003	-.006
	가구소득(월)	.060**	.067**	.057**	.062**	.063**	.060**	.060**
	부모교육수준 (수학년수)	-.001	.006	.005	.003	.001	.002	.002
	부모 혼인 상태 (0=결혼)	.026	.037	.004	.016	.018	.018	.018
가족 유형	가족유형 (type II)		.003		.005	.005	.005	.006
	가족유형 (type III)		.006		.014	.014	.012	.013
	가족유형 (type IV)		.052*		.044*	.050*	.048*	.046*
	가족유형 (type V)		.079***		.084***	.090***	.091***	.089***
가족 관계	부모애착(a)			-.092***	-.091***	-.091**	-.094***	-.091***
	가족응집력(b)			-.106***	-.105**	-.107**	-.115**	-.109***
	가족적응력(c)			.011	.010	.012	.008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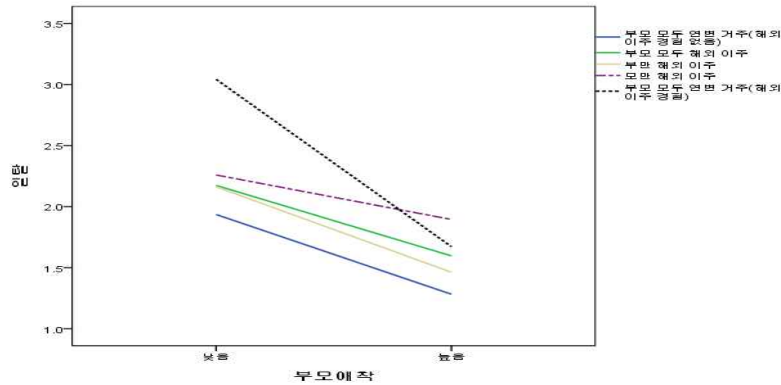
상호 작용 항	a*type II					.018		
	a*type III					-.003		
	a*type IV					.032		
	a*type V					-.064*		
	b*type II						.033	
	b*type III						.018	
	b*type IV						.031	
	b*type V						-.071**	
	c*type II							.042
	c*type III							.020
	c*type IV							.036
	c*type V							-.045*
R ²	.094	.102	.121	.128	.133	.135	.133	
ΔR ²				0	.005**	.007***	.005*	
F	31.504** *	22.935** *	30.040** *	23.542** *	19.458** *	19.754** *	19.330** *	
N	2435	2435	2423	2423	2423	2423	2423	

* 표준화회귀계수 / *p<.05, **p<.01, ***p<.001

(2) 가족관계와 가족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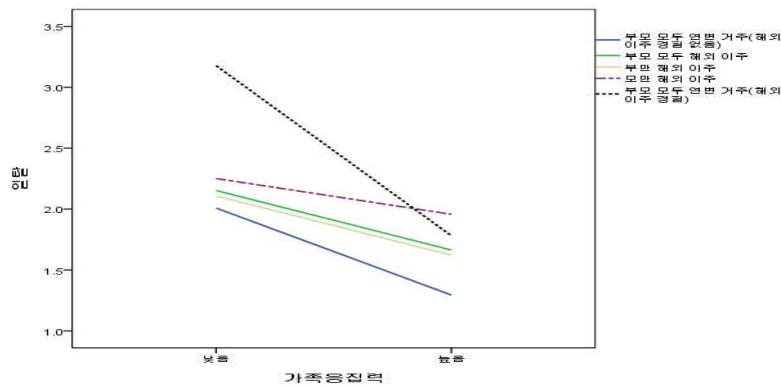
다음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부모애착에 따라 가족유형과 일탈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표 8>에서 각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델 V’와 ‘모델 VI’의 회귀방정식 결과를 각각 수식으로 구성한 후 그 수식을 그래프 형태로 제시하였다. 수식 구성은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애착수준’, ‘정서/의사소통능력’에 따른 일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분변수(0=낮음, 1=높음)를 만들고, 회귀방정식으로 구성한 수식이 각 변수의 수준에 따라 어떤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1> 가족유형과 부모애착 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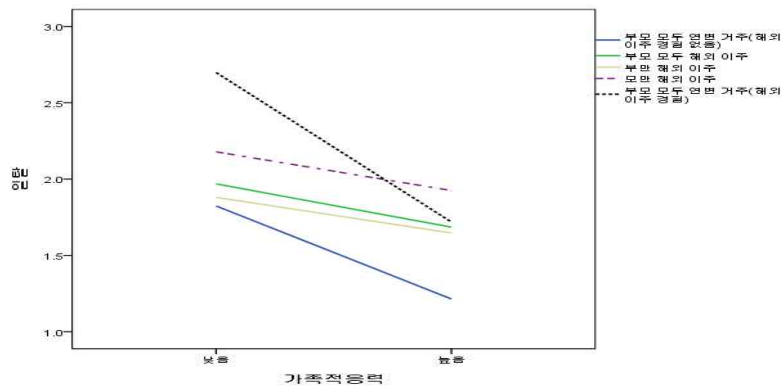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2>는 초국가적 가족유형에 따른 일탈 수준이 가족응집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 유형에서 가족응집력의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만 해외 이주> 유형에서는 가족응집력의 효과가 가장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유형 간 일탈 수준은 가족응집력의 효과가 커질수록 수렴하다 교차되어 역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여타의 유형은 준거변수와 차이가 거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표 8>의 <모델 VI>에서 초국가적 가족유형 중 가족응집력 간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점과 일치한다.

<그림 2> 가족유형과 가족응집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



마지막으로 <그림 3>은 초국가적 가족유형에 따른 일탈 수준이 가족적응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가족응집력과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연변 거주> 유형에서 가족적응력의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가족적응력의 수준이 커질수록 어머니만 해외이주한 유형과 일탈수준이 교차되어 역전되었다. 하지만 여타의 유형은 준거변수와 차이가 미비하여 간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 가족유형과 가족적응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



V. 결론 및 함의

최근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주 패턴은 본국과 거주국 사이를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왕래하면서 가족 분가와 재결합이 빈번하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이주로 가족구조는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정일 수밖에 없으며 본국에 남겨진 자녀들의 심리적이고 사회문화 적응상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해체에 따라 불안정한 가족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일탈 등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 질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이러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가 일탈에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하여 일탈의 수준을 가중시키거나 억제하기도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족 초국가적 가족 유형이 청소년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유대, 가족탄력성에 따라 그 효과가 조절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초국가적 가족 유형에 따른 일탈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한 번도 해외이주를 하지 않고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자녀들을 준거로 했을 시 어머니만 해외에 이주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유형(type IV)과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중 어머니의 부재와 부모 모두와 일정 기간 떨어져 살다 재결합한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비행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중비행은 준거 유형과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와만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분거하고 홀로 부모 부재한 상황에 적응하다가 다시 부모와 재결합하는 과정은 오히려 연변에 남겨진 자녀들에게 더욱 혼란과 심리적 불안정, 스트레스 상황을 가중시키고 문제행동을 더욱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녀의 학교 부적응, 심리적 문제, 일탈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부모가 모두 일시에 연변으로 귀국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가족 유형에 따른 부모애착,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가족관계 변수가 어머니만 해외에 이주한 유형과 여타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양육자 중 어머니의 부재가 가족관계 유지와 유대감 형성에 특히 취약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모 모두 해외 이주한 경우는 부모 부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서 부모 부재상황에 적응이 돼서 부모유대와 가족탄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평균차이검증 결과가 인과관계를 통해서는 어떤 관계성을 보이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타의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구조 중 어머니만 해외로 이주한 경우와 부모 모두 해외로 이주한 후 동거한 유형이 일탈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 양육자 중 어머니의 부재와 가족구성원의 빈번한 이동성과 변화가 일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변수 중에서는 부모유대와 가족응집력만 일탈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평소 유대감과 원만한 의사소통,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교류, 친밀성을 통해 청소년들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관심이 주어질 때 비행 예방에 효율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유형과 일탈과의 관계에서 가족관계의 수준에 따라 인과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모두 해외 이주 후 연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유형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부모애착,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에 따라 그 크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 즉 부모의 해외 이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잦은 가족의 자녀가 일탈 행동에 더욱 가담하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 가족구성원 간 의사소통, 정서교감, 문제해결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조절되었다. 이 중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 유형과 가족적응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비행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중비행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였다. 이는 가벼운 비행보다 심한 수준의 비행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대처 능력이 청소년 일탈에 보다 긍정적인 억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사용하여 초국가적 가족 유형(구조)이 연변에 남겨진 자녀들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족관계의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함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무엇보다 부모의 해외 이주가 자녀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모가 한 번도 해외에 이주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부재와 가족구성원의 분거와 재결합의 반복되는 가변적인 가족 환경이 청소년 일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감과 가족탄력성이 그 영향력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조절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사용하여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일탈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그 역의 관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선후관계

를 명확히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부모 모두 해외 이주로 부재한 상황을 잘 적응한 청소년은 부모 없이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것이 일탈을 저지를 정도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부모 부재의 상황을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 통제와 감독의 부재로 일탈과 문제 행동 빈도가 잦아져서 오히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의 귀국을 촉진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모두 해외 이주(type II)> 유형은 일탈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 모두 해외 이주 후 동거(type V)> 유형에서 유독 일탈 등의 문제 행동이 빈번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와 일탈 간의 관계의 명확히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강유진 (2009). “기러기가족의 초국적 적응전략 및 가족 경로.” 『한국지역사회생활 과학회지』. 제20권. 제2호, pp. 205-221.
- 강진웅 (2012).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종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제46권. 제4호, pp. 96-146.
- 구지영 (2011). “지구화 시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 칭다오(淸島)의 사례를 통해.” 『한국민족문화』. 제40권, pp. 421-457.
- _____ (2013). “지구화시대 조선족의 이동과 정주에 관한 소고: 중국 청도(靑島)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68권, pp. 297-330.
- 기광도 (2009).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pp. 41-70.
- 김명숙·김성봉·김도영·허철수 (2012) “조선족 결손가정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 99-119.
- 김영미 (2006).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 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 151-178.
- 김준호·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 (2003). 『청소년 비행론』. 청목출판사.
- 김현미 (2009). “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한국문화인류학』. 제42권. 제2호, pp. 35-75.
- 리 화 (2014). “초국가적 자녀 양육으로 보는 조선족 가족의 문화적 지속성과 변용.” 『중앙시론』. 제39권, pp. 77-109.
- 박혜원·박민정 (2005). “연변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3호, pp. 221-231.
- 방미화 (2013). “재한 조선족의 실천전략별 귀속의식과 정체성.” 『사회와 역사』. 제98권, pp. 227-257.
- 신송연·장현석 (2013).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통제력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제7권. 제2호, pp. 3-33.
- 신혜섭 (2005). “가정폭력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이 남녀 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17권. 제2호, pp. 63-88.
- 오승환·이성균·이창한 (2013). 『양극화 시대 가족해체와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집문당.
- 오이시 나나 (2009). “경계없는 가족? 여성이주와 초국적 가족.” 허라금. 『글로벌

-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한울, pp. 296-323.
- 우명숙·이나영 (2013).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시간성과 공간성의 교차 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7권, pp. 139-169.
-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10호, pp. 91-102.
- 윤명숙·조혜정·박수영 (2012).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부모와 별거기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pp. 113-137.
- 윤우석 (2011).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과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검증.”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pp. 132-172.
- 이삼연 (2002).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pp. 37-65.
-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에 있어 합리적 선택요소의 효과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pp. 167-191.
- 이정은 (2012). “‘외국인’과 ‘동포’ 사이의 성원권: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에 따른 성원권 획득 전략.” 『경제와 사회』. 제96권, pp. 402-429.
- 이창환·강민완 (2010). “결손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적응유연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pp. 175-200.
- 정소희 (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0권. 제1호, pp. 185-213.
- 정혜원·김명숙·임원선 (2011). “조선족 중국 농촌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호, pp. 323-333.
- 조아미·임영식 (2009). “가족구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지위비행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 제6권. 제1호, pp. 137-154.
- 한상돈 (2013). “중국 농촌의 유수(留守)소년 문제와 대책.” 『소년보호연구』. 제2권, pp. 187-218.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17권, pp. 151-177.
- 황혜정 (2003).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과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2호, pp. 27-38.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5, pp. 23-38.
- Basch, L. N., Schiller, G. & Blanc, C. S.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

- n-States*. Langhorne, PA: Gordon and Breach.
- Baldassar, L. (2007). "Transnational families and the provision of moral and emotional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truth and distance."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Vol. 14, pp. 385-409.
- Baldassar, L., Baldock, C. & Wilding, R. (2007). *Families Caring Across Borders: Migration, Aging and Transnational Caregiving*. London: Palgrave MacMillan.
- Banfi, L. & Boccagni, P. (2011). "Transnational Family Life and Female Migration in Italy: One or Multiple Patterns?" A. Kraler, E. Kofman, M. Kohli, & C. Schmoll (ed). *In Gender, Generations and the Family in International Migration*.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287-311.
- Barrett, A. E. & Turner, R. J. (2006). "Family structure and substance use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Examining explanations for the relationship." *Addiction*. Vol. 101, pp. 109-120.
- Bernardini, S. C. & Jenkins, J. M. (2002). *An Overview of Risks and Protectors for Children of Separation and Divorce*. Ottawa: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Family, Children and Youth Section.
- Bernhard, J. K., Landolt, P. & Goldring, L. (2009). "Transnationalizing Families: Canadian Immigration Policy and the Spatial Fragmentation of Care-giving among Latin American Newcomers." *International Migration*. Vol. 47. No. 2, pp. 3-31.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nizzoni, P. & Boccagni, P. (2013). "Care circulation revisited: A conceptual map of diversity in transnational parenting." Loretta Baldassar & Laura Merla (ed.).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the Circulation of Care: Understanding Mobility and Absence in Family Life*, pp. 77-93.
- Browning, J. C. (1960). "Differential impact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ale adolescents." *Social Problems*. Vol. 8. No. 1, pp. 37-44.
- Bryceson, D. & Vuorela, U. (2002).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NY: Berg.
- Demuth, S. & Brown, L. S.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41. No. 1, pp. 58-81.
- Dreby, J. (2006). "Honor and virtue: Mexican parenting in the transnational context." *Gender and Society*. Vol. 20, pp. 32-60.
- _____. (2010). *Divided by Borders. Mexican Migrants and Their Childr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arrington, D. P. (1996).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to adulthood. Readings in Contemporary Criminological Theory*.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Faist, T. (2000)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3. No. 2, pp. 189 - 222.
- Fresnoza-Flot, A. (2009). "Migration status and transnational mothering: the case of Filipino migrants in France." *Global Networks*. Vol. 9. No. 2, pp. 252-270.
- Goulbourne, H., Reynolds, T., Solomos, J. & Zontini, E. (2010). *Transnational Families: Ethnicities, Identities and Social Capital*. Abingdon, Routledge.
- Graham, E. & Jordan, L. P. (2011). "Migrant parent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left-behind children in Southeast Asia." *J. Marriage Fam*. Vol. 73. No. 4, pp. 763-787.
- Graham, E., Jordan, L. P. & Yeoh, B. S. (2015). "Parental migration and the mental health of those who stay behind to care for children in South-East Asia." *Soc. Sci. Med*. Vol. 132, pp. 225-235.
- Heymann, J., Flores-Macias, F., Hayes, J. A., Kennedy, M., Lahaie, C. & Earle, A. (2009). "The impact of migration on the well-being of transnational families: New data from sending communities in Mexico." *Community, Work & Family*. Vol. 12, pp. 91-103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rdan, L. P. & Graham, E. (2012). "Resilience and well-being among children of migrant parents in South-East Asia." *Child. Dev*. Vol. 83. No. 5, pp. 1672-1688.
- Kobayashi, A. & Preston, V. (2007). "Transnationalism through the life course: Hong Kong immigrants in Canada." *Asia Pacific Viewpoint*. Vol. 48. No. 2, pp. 151-167.
- Kwon, J. H. (2013). *Mobile Ethnicity: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hinese*

Transnational Migrant Class. Ph. D. Dissertation of Duke University.

- Lahaie, C., Hayes, Jeffrey A., Piper, Tinka M. & Heymann, J. (2009). "Work and family divided across borders: the impact of parental migration on Mexican children in transnational families." *Community, Work & Family*. Vol. 12. No. 3, pp. 299-312.
- Landolt P. & Da W. W. (2005). "The spatially ruptured practices of migrant families: a comparison of immigrants from El Salvador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urrent Sociology*. Vol. 53. No. 4, pp. 625-653.
- Liu, Z. & Ge, X. (2009). "Left too early: the effects of age at separation from parents on Chinese rural children's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Am. J. Public Health*. Vol. 99, pp. 2049-2054.
- Mazzucato, V. (2014). "Child well-being and transnational families." Michalos, A. (Ed.).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Springer. Dordrecht, pp. 749-755.
- McCubbin, H., McCubbin, M., McCubbin, A. & Futrell, J. (1998). *Resiliency in ethnic minority families*. Thousand Oaks, CA: Sage.
- Nye, F. I. (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 Parreñas, R. (2005). "Long distance intimacy: class,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Fillipono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 Vol. 5. No. 4, pp. 317-336.
- Pottinger, A. M. (2005). "Children's experience of loss by parental migration in inner-city Jamaic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75. No. 4, pp. 485-496.
- Pribilsky, J. (2004). "'Aprendemos a Convivir': Conjugal Relations, Co-parenting, and Family Life among Ecuadorian Transnational Migrants in New York City and the Ecuadorian Andes." *Global Networks* Vol. 4. No. 3, pp. 313-334.
- Schmalzbauer, L. (2008). "Family divided: the class formation of Honduran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 Vol. 8. No. 3, pp. 329-346.
- Smith, A., Lalonde, R. N. & Johnson, S. (2004). "Seri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the children of Caribbean immigrants." *Cult. Divers. Ethn. Minor. Psychol.* Vol. 10, pp. 107-122.

- Suarez-Orozco, C., Todorova, I. L. G. & Louie, J. M. C. P. (2002). "Making up for lost time: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 *Fam. Process.* Vol. 41. No. 4, pp. 625-643.
- UNICEF (2006). *Promoting the Rights of Children Affected by Migration: UNICEF Report Following the HLD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 Vanore, M., Mazzucato, V., Siegel, M. (2015). "'Left behind' but not left alone: Parental migration and the psycho social health of children in Moldova." *Soc. Sci. Med.* Vol. 132, pp. 252-260.
- Wells, L. E. & Rankin, J. H. (1998). "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6. No. 2, pp. 263-285.
- Wells, L. E. & Rankin, J. (1988). "Juvenile victimization: Convergent validation of alternative measurem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2. No. 3, pp 287-307.
- Wen, M. & Lin, D. (2012). "Child development in rural China: children left behind by their migrant parents and children of nonmigrant families." *Child. Dev.* Vol. 83, pp. 120-136.
- Yeoh B., Huang S & Lam T. (2005). "Transnationalizing the 'Asian' family: imaginaries, intimacies and strategic intents." *Global Networks.* Vol. 5, pp. 307-315.
- Yeoh, B. & Lam, T. (2007). "The costs of (im)mobility: children left behind and children who migrate with a parent." In: United Nations ESCAP. *Perspectives on Gender and Migration.* United Nations. New York, pp. 120-149.
- Zill, N. M., Donna R. C. & Mary J. (1993).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7. No. 1, pp. 91-103.
- Zontini, E. (2004). "Immigrant women in Barcelona: coping with the consequences of transnational lives." *Journal of Ethnicity and Migration Studies.* Vol. 30. No. 6, pp. 1113-1144.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통계월보』. 7월호.

| 논문투고일 : 2015년 08월 14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08월 24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09월 09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3 (2015)

**Transnational Korean-Chinese Families and
Their Children's Delinquency: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arent-Child
Bonding and Family Resilience**

Youngho Song and Injin Yoon
(Dept. of Sociology, Korea Univ.)

Nowadays transnational family is a widespread phenomenon worldwide. Children left at home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migration of their parents, however, are known to suffer from depression, maladjustment at school, and deviant behavior.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how transnational migration of parents affect the likelihood of deviance of children left at home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child bonding and family resilienc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by a survey of 2,8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eight cities and counties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 of juvenile delinquency was particularly high when only mother migrated abroad or both parents lived with their children after they had returned from international migration. Parent-child attachment,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were lower among children whose mothers migrated abroad alone than children of other cases. After we controlled for other variables, family types where mothers migrated abroad alone or both parents lived with their children after international migration had independent adverse effects on juvenile delinquency. Among variables related with family relations, parent-child attachment and family cohesion had deterrent

effects on delinquency. In other words, children raised in an unstable environment where both parents continue repetitive migration were the most vulnerable to delinquency.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child bond and family resilience were, however, salient among these families.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transnational parenting where positiv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and intimate solidarity among family members can enhance adequate control and supervision of children.

- Key words: Transnational Family, Korean Chinese, Family Structure, Family Relations, Juvenile Delinquency